



메시

# 神 메시냐 인간 최강 네이마르냐



네이마르

아르헨티나가 헐투 끝에 승부차기에서 콜롬비아를 잡고 2021 코파 아메리카(남미축구선수권대회) 결승에 올랐다.

아르헨티나는 7일(한국시간) 브라질 마네 가힌샤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콜롬비아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2로 신승을 거뒀다.

이로써 코파 준우승을 차지한 2016년 이후 5년 만에 대회 결승에 진출한 아르헨티나는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9시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스타디움에서 브라질과 최강자 자리를 놓고 다툰다.

1993년 이후 코파 우승이 없는 아르헨티나는 28년 만의 우승에, 직전 2019 대회 우승팀인 브라질은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두 팀이 이 대회 결승에서 만나는 건 2007년 이후 14년 만이다. 당시 브라질이 3-0으로 완승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 아르헨티나, 승부차기 끝 콜롬비아에 승리 11일 브라질과 코파 아메리카 결승서 대결

아르헨티나는 대표팀에서 메이저 대회 우승을 맞은 적이 없는 리오넬 메시의 발끝에 더욱 기대를 건다.

이번 대회 최다 득점자인 메시는 6경기에서 4골 5도움을 작성하며 자신의 코파 최다 공격포인트 타이 기록을 썼다.

더불어 그는 현재 A매치 150경기에서 76골을 기록해 '축구 황제' 펠레가 세운 남미 선수 A매치 최다 골(77골)에 1골 차로 다가섰다.

결승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해 승리를 이끈다면 메시는 대표팀에서 사상 첫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품에 안는 동시에 펠레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반면 2001년 이후 20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코파 정상을 노렸던 콜롬비아는 아르헨티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아르헨티나는 이날 전날 7분 만에 선제골을 기선을 제압했다.

조바니 로 셀소의 침투 패스를 받은 메시가 상대 수비수와 경합에서 공을 지켜내며 재차 패스했고, 이를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오른발 슈트로 마무리했다.

결국 콜롬비아가 후반 들어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후반 16분 에드윈 카르도나의 패스를 받은 루이

스 디아스가 페널티 지역 왼쪽으로 쇄도해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다.

아르헨티나는 추가 골 사냥에 나섰으나 후반 28분 마르티네스와 앙헬 디마리아의 슈팅이 골대를 외면했고, 8분 뒤 메시의 왼발 슈팅은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번번이 기회를 놓쳤다.

90분이 다 지나도록 승부가 갈리지 않아 경기는 승부차기로 이어졌다.

승부차기에서는 아르헨티나 골키퍼 마르티네스의 활약이 양 팀의 희비를 갈랐다.

콜롬비아 첫 번째 키커 콰드라도와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차례로 슈팅을 성공한 뒤, 콜롬비아의 다민손 산체스와 미나의 슈팅이 마르티네스의 선방에 막혔다.

아르헨티나가 3-2로 앞선 상황, 콜롬비아의 다섯 번째 키커 카르도나의 슈팅이 마르티네스가 쳐내면서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

/연합뉴스

## K리그1 제주선수 1명 코로나19 양성 판정 야구·축구 모두 '비상'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기세가 그라운드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6일 K리그1 제주 소속 선수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여파로 오는 20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리그1 FC서울과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연기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주 선수단 및 코칭스태프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추가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상당수 인원이 2주간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돼 20일 경기에 정상적으로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은 다시 한번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혔다.

서울은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올 시즌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14라운드 광주전을 시작으로 15라운드 대구, 16라운드 전북, 17라운드 인천전을 예정대로 치르려 못하면서, A매치·ACL 휴식이었던 지난달 뒤늦게 대구·광주와 경기를 치렀다. 서울은 12개 팀 중에서 가장 적은 17경기를 소화한 상황이다.

KBO도 코로나19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KBO는 7일 "식약처에서 인종·허기받은 마스크 규정을 정부 지침에 맞게 추가해 리그 관계자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 지침을 한층 강화했다"며 "경기 중 그라운드 내 심판위원 및 주루코치의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 했다"고 밝혔다.

가족 간 전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KBO는 리그 관계자 중 가족 및 동거인이 해외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를 할 경우, 반드시 거주지를 분리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KBO는 KT 코치와 두산 전력분석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지난 6월 29일 경기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또 롯데 서튼 감독은 최근 국내에 입국한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 7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경문 도쿄올림픽 야구대표팀 감독

## KIA, 정해영·최원준·이진영 도쿄올림픽 대표팀과 대결

### 평가전 치를 라이징 스타 선발 23일 고척스카이돔에서 경기

KIA 타이거즈의 투수 정해영과 외야수 최원준·이진영이 '라이징 스타'로 도쿄올림픽 대표팀과 대결한다.

KBO가 23일 오후 6시 30분 고척스카이돔에서 2020 도쿄올림픽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를 라이징 스타팀 2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만 24세 이하(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또는 입단 3년 차 이하(2019년 이후 입단) 선수들로 구성된 명단에 KIA 정해영(20)과 최원준(24), 이진영(24) 등 3명이 포함됐다.

KBO는 "대표팀 기술위원이 올 시즌 KBO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고졸 2년 차인 정해영은 지난 시즌 필승조로 활약한 데 이어 올 시즌 마무리 전성현의 부상, 필승조 박준표의 부진 등으로 팀의 마무리 역할을 하고 있다.

정해영은 7일 경기 전까지 29경기에 나와 2.61의 평균자책점으로 4승 4패 14세이브를 수확했다.

고졸 6년 차 최원준은 지난해 성장세를 이어 올 시즌 팀의 톱 타자로 활약하고 있다.



정해영



최원준



이진영

70경기에서 0.301의 타율과 함께 1홈런 24타점을 기록했다. 올 시즌 18차례 베이스를 훔치면서 KBO리그 도루 부문 전체 3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올 시즌 우익수로 이동해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5차례 '특급 보살'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역시 고졸 6년 차 이진영은 많은 경기에서 나서는 못했지만 12경기에서 41타석에 들어서 홈런 2개, 3루타 1개, 2루타 2개를 기록하며 0.514의 장타율을 보이고 있다.

안정된 수비와 빠른 발도 이진영의 장점이다. 한편 올 시즌 신인으로는 두산 내야수 안재석(19), 롯데 투수 김진욱(19)·내야수 나승범

(19), 삼성 투수 이승현(19) 등 총 4명이 포함됐다.

투수진은 정해영, 김진욱, 이승현과 함께 2020시즌 '신인왕' KT 소형준(20)과 2019 프리미어12 대표팀 출신 카움 이승호(22)를 비롯해, NC 송명기(21), LG 이민호(20)·정우영(22), SSG 오원석(20), 한화 강재민(24)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포수 마스키는 롯데 정보근(22)과 상무 김형준(22)이 쓴다.

내야에서는 1루수에 나승엽과 LG 문보경(21)이 이름을 올렸고, 2루수 한화 정은원(21), 3루수 롯데 한동희(22)·한화 노시환(21), 유격수 두산 안재석·삼성 김지찬(20)·SSG 박성환(23)이 선정됐다.

외야는 KIA 최원준·이진영과 함께 롯데 추재현(22), SSG 최지훈(24)이 지킨다.

라이징 스타팀 지휘봉은 김시진 KBO 기술위원장이 잡는다.

김시진 감독을 보좌할 코치진으로는 박재홍 MBC 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 조인성 LG 퓨처스 배터리링 코치, 이승엽 SBS 스포츠 해설위원, 이종욱 NC 작전·주루코치, 봉준근 KBSN 스포츠 해설위원, 고영민 두산 작전 코치 등 과거 야구대표팀에서 활약한 레전드들이 선발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야구 '김경문호' 20일 소집 올림픽 메달위한 향해 시작

'김경문호'가 20일 올림픽 메달을 위한 향해를 시작한다.

2020 도쿄올림픽 야구대표팀 일정이 확정됐다.

대표팀은 18일 KBO리그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한 뒤 19일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 소집된다.

이어 20일 고척돔에서 첫 훈련을 갖고 대표팀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대표팀은 22일까지 훈련을 통해 손발을 맞춘 뒤 23일 24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된 라이징 스타팀과 평가전을 갖는다.

또 25일 카움 히어로와의 연습경기를 통해 최종 점검을 하고,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결전지' 일본으로 출국한다.

미국, 이스라엘과 B조에 편성된 대표팀은 29일 오후 7시 요코하마 야구장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올림픽 첫 경기를 치른다.

하루 휴식 뒤 31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미국과 대결한다.

조별리그 일정 뒤에는 변형 패자부활전 방식의 토너먼트로 A조에 속한 일본,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과 경기를 이어간다.

올림픽 메달의 주인공은 8월 7일 가려진다.

오후 12시 동메달 결정전이 먼저 치러지고, 오후 7시에 금메달을 놓고 도쿄올림픽 야구 종목의 마지막 경기가 치러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